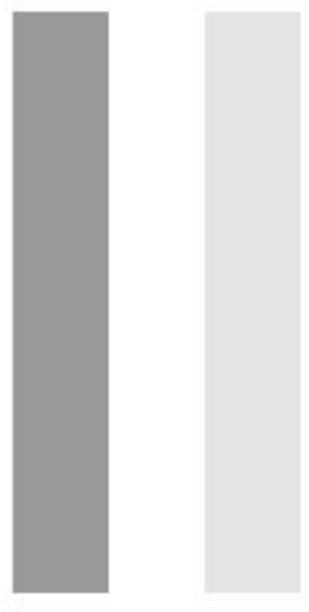


<고전연수원 134기 하계특강>

2017.07.03~2017.08.31



荀子



순자(荀子)

순자의 생애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 〈맹가순경열전(孟軻荀卿列傳)〉이다. 여기에 나오는 「사기색은(史記索隱)에 따르면 원래 순자의 성은 순(荀)이고 이름은 황(況)으로 사람들이 그를 높여 순경(荀卿)으로 불렀다고 한다. 후대의 문헌에 손경(孫卿) 또는 손경자(孫卿子)로 기록된 것은 한선제(漢宣帝)의 이름인 유순(劉詢)을 기휘(忌諱)한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호문의(胡文儀)는 「순경별전(荀卿別傳)」에서 순자는 원래 주나라 순백(荀伯) 공손(公孫)의 후예인 까닭에 손(孫)을 성씨로 삼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춘추전국시대 당시 공손의 후예는 대개 ‘공손(公孫)’을 성씨로 삼았다. ‘손’만을 떼어서 성씨로 삼은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대략 「사기색은(史記索隱)」의 기록을 좇아 한선제의 이름을 기휘한데 따른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사기(史記)》 〈맹가순경열전〉에 따르면 순자는 조(趙)나라 출신이다. 당시 조나라는 춘추시대의 진(晉)나라가 3분되면서 한(韓)·위(魏)와 더불어 건국된 나라로 지금의 산서성 중부와 하남성 남부를 차지하고 있었다. 동으로 제(齊), 동북으로 연(燕), 서로 진(秦), 북으로 흉노(匈奴), 남으로 한(韓), 남서로 위(魏) 등과 접경하고 있었다. 수도(首都) 한단(邯鄲)은 당시 상업과 수공업이 크게 번성한 교역의 중심지였다. 이는 자기 본분을 잊고 함부로 남의 흉내를 내는 지각없는 사람을 비유한 한단학보(邯鄲學步) 내지 한단지보(邯鄲之步)를 비롯해 덧없는 인생을 비유한 한단지몽(邯鄲之夢) 등의 성어(成語)가 나온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의 《순자(荀子)》는 총 20권 32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순자(荀子) 자신이 쓴 것과 제자들의 손에 의해 이뤄진 것이 뒤섞여 있으니, 모두 처음 편집했을 때의 모습은 아니다. 순자가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은 대략 춘신군이 살해되어 난릉 현령에서 파면된 이후로 짐작된다. 이는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 〈맹가순경열전〉의 기록이 뒷받침하니, “순자는 혼탁한 세상의 정치로 인해 망국난군(亡國亂君)이 잇달아 나오고, 성인의 대도(大道)를 수행하려 하지 않고 무축(巫祝: 일종의 무당)에 현혹되어 길흉의 조짐을 따르고, 비유(鄙儒)는 작은 일에 구애되고, 장주(莊周)와 같은 무리가 교활한 주장으로 풍속을 어지럽히는 것을 미워했다. 이에 유(儒)·묵(墨)·도(道)의 행사흥괴(行事興壞: 실천과정과 장단점)를 추단하여 차례로 수만 언에 달하는 저서를 내고 즐겼다.” 하였다.

그러나 순자가 난릉 현령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기필(起筆)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당시 과연 어떤 내용이 얼마나 저술되었는지는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순자(荀子)》를 최초로 교수한(校讎)한 전한(前漢) 말기의 유향(劉向)은 「손경신서서록(孫卿新書敍錄)」에서 자신이 요약-정리한 《손경신서(孫卿新書)》를 펴내게 된 경위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순자(荀子)》는 본래 322편이었으나 서로 중복된 내용이 정리되면서 총 32편으로 편제되었다. 그 편목을 보면 순서 상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현존 《순자(荀子)》와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

반고(班固)의 《한서(漢書)》 〈예문지(藝文志)〉는 《손경신서》의 〈성상(成相)〉 편과 〈부(賦)〉 편을 분리해 《손경자》 32편, 《손경부(孫卿賦)》 10편, 《성상잡사(成相雜事)》 11편이 존재했다고 기록해 놓았다. 이에 따르면 서진(西晉) 때 순욱(荀勗)과 장화(張華) 등은 유향의 《별집정리기적(別集整理記籍)》을 지으면서 이미 《손경부》 10편이 없는 까닭에 《순황집(荀況

集)》 2권으로 펴냈다. 《수서(隋書)》 〈경적지(經籍志)〉 에는 당시 《손경자》 12권과 《초난릉령 순황집(楚蘭陵令荀況集)》 1권이 존재한다고 기록해 놓았다. 수나라 때까지만 해도 《순자(荀子)》 가 하나로 통합되지 못했던 셈이다. 당나라 때에 이르러 양경(楊倞)이 유향의 《손경신서》 를 새로이 교정하여 주석을 달면서 총 32편 20권으로 정리한 《순경자》 를 펴냈는데 이를 약칭하여 《순자(荀子)》 로 불렀으니, 바로 현존하는 《순자(荀子)》 의 원본이다.

양경의 《순자(荀子)》 는 이후 별다른 수정 없이 그대로 전해졌으니 《구당서(舊唐書)》 〈경적지(經籍志)〉 의 《조순황집(趙荀況集)》 2권과 《신당서(新唐書)》 예문지(藝文志)〉 에 《조순황집(趙荀況集)》 2권, 《송사(宋史)》 〈예문지(藝文志)〉 에 《양경주(楊倞注) 순자(荀子)》 20권은 모두 양경의 《순자(荀子)》 판본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시대마다 유행한 판본에 차이가 있기는 했으나 양경의 주석에 수정이 가해졌던 것은 아니었다. 여러 판본 중 북송의 국자감본(國子監本)을 바탕으로 하여 남송 순희(淳熙) 8년(1181)에 간행한 태주간본(台州刊本)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경의 주석이 나온 이후 근 1천여 년 넘게 별다른 주석서가 나오지 못했다. 이는 말할 것도 없이 성리학의 출현으로 인해 공학의 적통이 맹자(孟子)에 있는 것으로 널리 선전되면서 순자가 이단으로 몰린데 따른 것이었다. 순자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기 시작한 것은 청대 중기 이후이다. 이는 소위 ‘한학과(漢學派)’로 불리는 고증학자(考證學者)들이 《순자(荀子)》 를 새롭게 인식한 결과였다. 이후 수많은 주석서가 우후죽순 격으로 쏟아져 나왔다.

대표적인 주석서로 사용(謝墉)의 《순자교(荀子校)》 와 노문초(盧文弨)의 《순자전교(荀子箋校)》, 왕념손(王念孫)의 《독순자잡지(讀荀子雜誌)》, 유태공(劉台拱)의 《순자외주(荀子外注)》, 학의행(郝懿行)의 《순자보주(荀子補注)》, 왕중(汪中)의 《순경

자통론(荀卿子通論)》, 주준성(朱駿聲)의 《순자교평(荀子校評)》, 유월(俞樾)의 《순자평의(荀子平議)》 등을 들 수 있다.

청대 말기의 왕선겸(王先謙)은 학의행과 왕념손, 유월을 포함해 기왕에 나온 수많은 학자들의 주석을 총망라한 가운데 자신의 주석을 부기한 《순자집해(荀子集解)》를 펴냈다. 이는 《순자(荀子)》 주석서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다. 왕선겸 이후에도 적잖은 학자들이 《순자집해(荀子集解)》를 토대로 《순자(荀子)》에 대한 새롭고도 다양한 주석을 시도했다. 대표적인 주석서로 유사배(劉師培)의 《순자보석(荀子補釋)》과 양계웅(梁啓雄)의 《순자간석(荀子簡釋)》, 양류교(楊柳橋)의 《순자고석(荀子詁釋)》, 응공철(熊公哲)의 《순자금주금석(荀子今注今釋)》 등을 들 수 있다.

《순자(荀子)》의 편제를 보면 《논어(論語)》 및 《맹자(孟子)》와 달리 각 편마다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심도 있는 이론이 전개되고 있다. 각 편の内容 또한 대체로 편명과 일치하고 있으니, 그 편제 면에서 《논어(論語)》를 매우 참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논어(論語)》가 〈학이(學而)〉 편으로 시작해 〈요왈(堯曰)〉 편으로 끝난 것과 같이 《순자》도 역시 〈권학(勸學)〉 편으로 시작해 「요문(堯問)〉 편으로 끝나고 있다. 《순자(荀子)》 32편은 대부분 순자가 직접 저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이 중 〈유효〉, 〈의병〉, 〈강국〉 편 등은 제자들의 작품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대략〉, 〈유좌〉, 〈자도〉, 〈법행〉, 〈애공〉, 〈요문〉 편 등 6편은 제자들이 순자의 언행과 전기를 기록한 것으로 공자의 언행을 모아놓은 《논어(論語)》의 〈향당(鄉黨)〉 편과 매우 닮아 있다.

* 《역주순자론》에서 전재(轉載)하였음.

○ 荀子序

昔唐韓愈氏 以荀子書為大醇小疵하고 逮宋하얀 攻者益衆하니 推其由컨대 以言性惡故니라.

余謂 性惡之說은 非荀子本意也라. 其言曰 直木이 不待栝而直者는 其性直也오. 枸木이 必待栝燕矯然後直者는 以其性不直也라. 今人性惡하니 必待聖王之治와 禮義之化然後에 皆出于治하고 合于善也라하니라.

夫使荀子而不知人性有善惡이면 則不知木性有枸直矣리라. 然而其言如此하니 豈真不知性邪아 余因以悲荀子遭世大亂하야 民胥泯棼하야 感激而出此也니라.

荀子論學論治는 皆以禮為宗하야 反復推詳하야 務明其指趣하니 為千古修道立教所莫能外라. 其曰 倫類不通이면 不足謂善學하고, 又曰 一物失稱은 亂之端也하니, 探聖門一貫之精하고 洞古今成敗之故라

論議不越几席이로되 而思慮浹于無垠하고 身未嘗一日加民이로되 而行事可信하니 其放推而皆準이라. 而刻之徒 詆謫橫生하야 按之不得與于斯道라. 余又以悲荀子術不用于當時하고 而名滅裂于後世하며 流俗人之口為重屈也라.

國朝儒學昌明하야 欽定四庫全書提要에 首列荀子儒家하고 斥好惡之詞하야 通訓詁之誼하니 定論昭然하야 學者 始知崇尚이라. 顧其書 僅有楊倞注로되 未為盡善이라. 近世通行嘉善謝氏校本은 去取亦時有疏舛일새 宿儒大師 多所匡益이라.

家居少事에 輒旁采諸家之說하야 為荀子集解一書하되 管窺所及을 閑亦坳載라. 不敢謂于荀書精意에 有昕發明이나 而于析楊謝之疑辭하고 酌宋元之定本에 庶幾不無一得하리라.

刻成에 謹弁言簡端하고 並揭荀子箸書之微旨하야 與後來讀者 共證明之云이라.

光緒十七年歲次辛卯夏五月 長沙 王先謙謹序

○ 荀子序

昔周公이 稽古三五之道하고 損益夏殷之典하야 制禮作樂하고 以仁義理天下하니 其德化刑政이 存乎詩러라. 至于幽厲失道하얀 始變風變雅作矣니라. 平王이 東遷하야 諸侯力政하고 逮五霸之後하얀 則王道 不絕如綫이라. 故仲尼 定禮樂하고 作春秋하니 然後三代遺風이 弛而復張이나 而無時無位하니 功烈이 不得被于天下하고 但門人傳述而已며, 陵夷至于戰國이라.

於是에 申商苛虐하고 孫吳變詐하야 以族論罪하고 殺人盈城이언마는 談說者 又以慎墨蘇張爲宗하니 則孔氏之道 幾乎息矣러라. 有志之士 所爲痛心疾首也라. 故孟軻 闡其前하고 荀卿이 振其後하니 觀其立言指事하면 根極理要하고 敷陳往古하며 揶揄當世하야 撥亂興理를 易於反掌하니 真名世之士며 王者之師라. 又其書 亦所以羽翼六經하고 增光孔氏하니 非徒諸子之言也니라. 蓋周公制作之하고 仲尼祖述之하고 荀孟贊成之하야 所以膠固王道하야 至深至備하니 雖春秋之四夷交侵하고 戰國之三綱弛絶이나 斯道 竟不墜矣니라.

倥 以末宦之暇에 頗窺篇籍하야 竊感炎黃之風이 未洽於聖代하
고 謂荀孟有功於時政하야 尤所耽慕러라. 而孟子有趙氏章句하고
漢氏亦嘗立博士하야 傳習不絕故로 今之君子 多好其書로되 獨
荀子未有注解하고 亦復編簡爛脫하며 傳寫謬誤하니 雖好事者
時亦覽之라도 至於文義不通이면 屢掩卷焉이라.

夫理曉則愜心하고 文舛則忤意하니 未知者는 謂異端不覽하고 覽
者는 以脫誤不終하니 所以荀氏之書千載而未光焉이니라. 輒用申
抒鄙意에 敷尋義理하야 其所徵據는 則博求諸書라 但以古今字
殊하고 齊楚言異하니 事資參考하야 不得不廣이라. 或取偏傍相近
하며 聲類相通하고 或字少增加하며 文重刊削하고 或求之古字하고
或徵諸方言이라.

加以孤陋寡儔하며 愚昧多蔽하니 穿鑿之責을 於何可逃리오 曾
未足粗明先賢之旨하야 適增其蕪穢耳이라 蓋以自備省覽이오 非
敢傳之將來라. 以文字繁多故로 分舊十二卷三十二篇爲二十卷
하고 又改《孫卿新書》爲《荀卿子》하며 其篇第도 亦頗有移易
하야 使以類相從云이라.

時歲在戊戌，大唐睿聖文武皇帝元和十三年十二月也

勸學篇第一

1章

君子曰 學不可以已니 靑은 出之於藍이나 而靑於藍이오 冰은 水爲之나 而寒於水니라.

木直中繩이라도 輮以爲輪하면 其曲中規하니 雖有槁暴이라도 不復挺者는 輮使之然也일새니라

故木受繩則直하고 金就礪則利하니 君子 博學하야 而日參省乎己면 則知明而行無過矣니라.

故不登高山이면 不知天之高也오 不臨深谿면 不知地之厚也오 不聞先王之遺言이면 不知學問之大也니라.

干越夷貉之子 生而同聲이나 長而異俗은 教 使之然也일새니라

詩曰 嗟爾君子여 無恒安息이어다 靖共爾位하고 好是正直하라 神之聽之하고 介爾景福이리라하니 神莫大於化道하고 福莫長於無禍니라.

2章

吾嘗終日而思矣나 不如須臾之所學也며 吾嘗跂而望矣나 不如登高之博見也니라

登高而招면 臂非加長也로되 而見者遠하고 順風而呼면 聲非加疾也로되 而聞者彰이라. 假輿馬者는 非利足也로되 而致千里하고 假舟楫者는 非能水也로되 而絕江河하나니 君子 生非異也오 善假於物也니라.

3章

南方有鳥焉하니 名曰蒙鳩라 以羽爲巢하고 而編之以髮하야 繫之葦苕하니 風至苕折이어든 卵破子死하나니 巢非不完也라 所繫者然也니라.

西方有木焉하니 名曰射干이라 莖長四寸이나 生於高山之上하야 而臨百仞之淵하나니 木莖非能長也라 所立者 然也일새니라.

蓬生麻中이면 不扶而直하고 [白沙在涅이면 與之俱黑]이라.

蘭槐之根是為芷나 其漸之滌면 君子不近하고 庶人不服하나니 其質이 非不美也라 所漸者 然也일새니라. 故君子 居必擇鄉하고 遊必就士하나니 所以防邪僻하고 而近中正也니라.

4章

物類之起는 必有所始하며 榮辱之來는 必象其德이라. 肉腐出蟲하고 魚枯生蠹하나니 怠慢忘身이면 禍災乃作이니라. 強自取柱하고 柔自取束이라.

邪穢在身이면 怨之所構하니 施薪若一이라도 火就燥也오 平地若一이라도 水就濕也라. 草木疇生하고 禽獸群焉하니 物各從其類也라

是故 質的張이면 而弓矢至焉하고 林木茂면 而斧斤至焉이며 樹成蔭이면 衆鳥息焉하고 醯酸이면 而螞聚焉이라

故言有召禍也오 行有招辱也니 君子 慎其所立乎인저.

5章

積土成山이면 風雨興焉하고 積水成淵이면 蛟龍生焉하나니 積善成德이면 而神明自得하고 聖心備焉이라.

故不積跬步면 無以致千里오 不積小流면 無以成江河니라 騏驎一躍라도 不能十步오 駑馬十駕니 功在不舍니라.

6章

昔者에 瓠巴 鼓瑟이면 而流魚出聽하고 伯牙 鼓琴이면 而六馬仰秣이라. 故聲無小而不聞하며 行無隱而不形이라 玉在山而草木潤하고 淵生珠而崖不枯하나니 爲善不積邪면 安有不聞者乎아.

7章

學 惡乎始며 惡乎終고 曰 其數는 則始乎誦經하야 終乎讀禮하며 其義는 則始乎爲士하야 終乎爲聖人이라. 眞積力久則入이니 學 至乎沒而後止也니라.

故學數有終이나 若其義則不可須臾舍也니라. 爲之면 人也오 舍之면 禽獸也라. 故書者는 政事之紀也오 詩者는 中聲之所止也며 禮者는 法之大分이며 群類之綱紀也니라. 故學至乎禮而止矣니 夫是之謂道德之極이라.

禮之敬文也와 樂之中和也와 詩書之博也와 春秋之微也는 在天地之間者 畢矣니라.

8章

君子之學也는 入乎耳면 箸乎心하야 布乎四體하고 形乎動靜하니 端而言하고 蠕而動이라도 一可以爲法則이라.

小人之學也은 入乎耳면 出乎口하니 口耳之間은 則四寸耳니 曷足以美七尺之軀哉리오

古之學者 爲己러니 今之學者 爲人이라. 君子之學也은 以美其身 이언마는 小人之學也은 以爲禽犢이라.

故不問而告를 謂之傲오 問一而告二를 謂之囋하니 傲 非也며 囋도 非也니 君子如嚮矣니라.

9章

學莫便乎近其人이니 禮樂은 法而不說하고 詩書는 故而不切하고 春秋는 約而不速하나니 方其人之習과 君子之說이면 則尊以徧矣 하야 周於世矣이리라

故曰 學莫便乎近其人이라. 學之經은 莫速乎好其人하고 隆禮次之니라 上不能好其人하고 下不能隆禮면 安將學雜識志하고 順詩書而已耳리니 則末世窮年이라도 不免爲陋儒而已니라.

將原先王하고 本仁義하면 則禮正其經緯蹊徑也리라. 若挈裘領하야 誦五指而頓之면 順者 不可勝數也니라

不道禮憲하고 以詩書爲之는 譬之컨대 猶以指測河也며 以戈春黍也며 以錐殮壺也하야 不可以得之矣리라. 故隆禮면 雖未明이나 法士也오 不隆禮면 雖察辯이나 散儒也니라.

10章

問楛者 勿告也하고 告楛者 勿問也하며 說楛者 勿聽也하고 有爭氣者 勿與辯也니라 故必由其道至然後接之니 非其道則避之니라

故禮恭而後에 可與言道之方하고 辭順而後에 可與言道之理하며 色從而後에 可與言道之致니 故未可與言而言이면 謂之傲오 可與言而不言이면 謂之隱이오 不觀氣色而言謂之瞽라.

故君子는 不傲、不隱、不瞽하야 謹順其身이니라. 詩曰 匪交匪舒하니 天子所予라하니 此之謂也니라.

11章

百發失一이면 不足謂善射하고 千里踰步不至면 不足謂善御이오 倫類不通하고 仁義不一이면 不足謂善學이니 學也者는 固學一之也라.

一出焉하고 一入焉은 涂巷之人也며 其善者少하고 不善者多는 桀紂盜跖也이니 全之盡之然後에 學者也니라.

君子는 知夫不全不粹之면 不足以為美也라 故誦數以貫之하고 思索以通之하며 爲其人以處之해야 除其害者以持養之니라.

使目非是 無欲見也하고 使耳非是 無欲聞也하며 使口非是 無欲言也하고 使心非是 無欲慮也니라.

及至其致好之也하얀 目好之五色하고 耳好之五聲하며 口好之五味하고 心利之有天下니라. 是故 權利 不能傾也하고 群衆不能移也하고 天下不能蕩也니라.

生乎由是하고 死乎由是하니 夫是之謂德操라. 德操然後能定하고 能定然後能應하니 能定能應를 夫是之謂成人이라. 天見其明하고 地見其光하니 君子貴其全也니라.

修身篇第二

1章

見善커든 修然해야 必以自存也오 見不善커든 愀然해야 必以自省也니 善在身이면 介然해야 必以自好也오 不善在身이면 菑然해야 必以自惡也니라.

故非我而當者_는 吾師也_며 是我而當者_는 吾友也_며 諂諛我者_는 吾賊也_라 故君子_는 隆師而親友_{하고} 以致惡其賊_{이니} 好善無厭_하며 受諫而能誠_면 雖欲無進_{이나} 得乎哉_아.

小人反是_{하니} 致亂而惡人之非己也_{하고} 致不肖而欲人之賢己也_{하니} 心如虎狼_{하고} 行如禽獸_나 而又惡人之賊己也_라 諂諛者親_{하고} 諫爭者疏_{하며} 修正爲笑_{하고} 至忠爲賊_{하니} 雖欲無滅亡_{이나} 得乎哉_아.

詩曰 滄滄訛訛_{하니} 亦孔之哀_{로다} 謀之其臧_은 則具是違_{하고} 謀之不臧_은 則具是依_{이라} 하니 此之謂也_{니라}.

2章

扁善之度_{하야} 以治氣養生_{하면} 則後彭祖_{하고} 以修身自名_{하면} 則配堯禹_{하니} 宜於時通_{하고} 利以處窮_은 禮信是也_{니라}.

凡用血氣、志意、知慮_에 由禮則治通_{하고} 不由禮則勃亂提優_하며 食飲、衣服、居處、動靜_에 由禮則和節_{하고} 不由禮則觸陷生疾_하며 容貌、態度、進退、趨行_에 由禮則雅_{하고} 不由禮則夷固僻違_{하야} 庸衆而野_라

故人無禮則不生하고 事無禮則不成하고 國家無禮則不寧이니라.
詩曰 禮儀卒度하며 笑語卒獲이라하니 此之謂也니라.

3章

以善先人者謂之教오 以善和人者謂之順하며 以不善先人者謂之諂이오 以不善和人者謂之諛니라. 是是非非謂之知오 非是是非謂之愚니라.

傷良曰讒이오 害良曰賊이며 是謂是非謂非曰直이오 竊貨曰盜오 匿行曰詐오 易言曰誕이며 趣舍無定謂之無常이오 保利棄義謂之至賊이며 多聞曰博이오 少聞曰淺이며 多見曰閑이오 少見曰陋며 難進曰倨오 易忘曰漏며 少而理曰治오 多而亂曰秬니라.

4章

治氣養心之術하니 血氣剛強이면 則柔之以調和하고 知慮漸深이면 則一之以易良이니라. 勇膽猛戾면 則輔之以道順하고 齊給便利하면 則節之以動止니라.

5章

志意修則驕富貴오 道義重則輕王公리니 內省則外物輕矣니라.
傳曰 君子役物하고 小人役於物이라하니 此之謂矣니라.

身勞而心安이면 爲之하고 利少而義多면 爲之니 事亂君而通은
不如事窮君而順焉이니라. 故良農은 不爲水旱不耕하고 良賈는
不爲折閱不市하고 士君子 不爲貧窮怠乎道하니라.

6章

體恭敬而心忠信하며 術禮義而情愛人이면 橫行天下라가 雖困四
夷라도 人莫不貴오

勞苦之事則爭先하고 饒樂之事則能讓하며 端慤誠信하야 拘守而
詳이면 橫行天下라가 雖困四夷라도 人莫不任이오

體倨固而心執詐하며 術順墨而精雜汙면 橫行天下라가 雖達四方
이라도 人莫不賤이오

勞苦之事는 則偷儒轉脫하고 饒樂之事는 則佞兌而不曲하고 辟
違而不慤하며 程役而不錄하면 橫行天下라가 雖達四方이라도 人
莫不棄니라.

7章

行而供冀은 非漬淖也며 行而俯項은 非擊戾也며 偶視而先俯는
非恐懼也라. 然夫士 欲獨修其身은 不以得罪於比俗之人也니라.

8章

夫驥一日而千里나 駑馬十駕면 亦及之矣니 將以窮無窮하야 逐無極與아 其折骨絕筋하야 終身不可以相及也니라. 將有所止之면 則千里雖遠이라도 亦或遲或速하며 或先或後나 胡爲乎其不可以相及也리오 不識步道者 將以窮無窮하야 逐無極與아 意亦有所止之與아

9章

道雖邇라도 不行이면 不至하고 事雖小라도 不爲면 不成하나니 其爲人也 多暇日者는 其出入이 不遠矣리라.

好法而行은 士也며 篤志而體는 君子也며 齊明而不竭은 聖人也니라.

人無法이면 則佞佞然하고 有法而無志其義면 則渠渠然하나니 依乎法하고 而又深其類然後 溫溫然이니라.

10章

禮者는 所以正身也오 師者는 所以正禮也니 無禮면 何以正身이며 無師면 吾 安知禮之爲是也리오. 禮然而然이면 則是情安禮也오 師云而云이면 則是知若師也니라. 情安禮하고 知若師면 則是聖人也라

故非禮면 是無法也오 非師면 是無師也니 不是師法하고 而好自用은 譬之컨대 是猶以盲辨色하고 以聾辨聲也니 舍亂妄이면 無爲也리라.

故學也者는 禮法也라. 夫師는 以身爲正儀하고 而貴自安者也니라. 詩云 不識不知하고 順帝之則이라하니 此之謂也니라.

11章

端慤順弟하면 則可謂善少者矣라. 加好學遜敏焉하고 則有鈞無上하면 可以爲君子者矣니라.

偷儒憚事하며 無廉恥而嗜乎飲食이면 則可謂惡少者矣라 加惕悍而不順하야 險賊而不弟焉하면 則可謂不詳少者矣리니 雖陷刑戮이라도 可也니라.

老老면 而壯者 歸焉하고 不窮窮이면 而通者 積焉하나니 行乎冥冥하고 而施乎無報면 而賢不肖 一焉이니 人有此三行이면 雖有大過라도 天其不遂乎아.

12章

君子之求利也 略이나 其遠害也 早하며 其避辱也 懼나 其行道
理也 勇이나 君子 貧窮而志廣하고 富貴而體恭하며 安燕而血氣
不惰하고 勞勸而容貌不枯하며 怒不過奪하고 喜不過予니라.

君子 貧窮而志廣은 隆仁也오 富貴而體恭은 殺勢也오 安燕而血
氣不惰는 束理也오 勞勸而容貌不枯는 好交也오 怒不過奪하고
喜不過予는 是法勝私也니라.

書曰 無有作好하고 遵王之道하며 無有作惡하고 遵王之路라하니
此言君子之能以公義勝私欲也니라.

不苟篇第三

1章

君子는 行不貴苟難하고 說不貴苟察하고 名不貴苟傳하나니 唯其
當之爲貴니라. 故懷負石而赴河는 是行之難為者也로되 而申徒
狄이 能之언마는 然而君子不貴者는 非禮義之中也일새니라.

盜跖은 吟口하야 名聲이 若日月하야 與舜禹俱傳而不息이나 然而
君子不貴者는 非禮義之中也일새니라.

故曰 君子는 行不貴苟難하고 說不貴苟察하며 名不貴苟得하고 唯其當之爲貴하나니 詩曰 物其有矣면 唯其時矣라하니 此之謂也니라.

2章

君子는 易知而難狎하고 易懼而難脅하고 畏患而不避義死하고 欲利而不爲所非하며 交親而不比하고 言辯而不辭하니 蕩蕩乎其有以殊於世也니라.

3章

君子는 能亦好하고 不能亦好어니와 小人은 能亦醜하고 不能亦醜니라. 君子는 能則寬容易直하야 以開道人하고 不能則恭敬縵紕하야 以畏事人어니와 小人은 能則倨傲僻違하야 以驕溢人하고 不能則妬嫉怨誹하야 傾覆人이라

故曰 君子 能則人榮學焉하고 不能則人樂告之나 小人 能則人賤學焉하고 不能則人羞告之하나니 是君子小人之分也니라.

4章

君子는 寬而不慢하고 廉而不劌하며 辯而不爭하고 察而不激하며 寡立而不勝하고 堅彊而不暴하며 柔從而不流하고 恭敬謹慎而容하나니 夫是之謂至文이니라. 詩曰 溫溫恭人이어 惟德之基라하니 此之謂也니라.

5章

君子는 崇人之德하고 揚人之美나 非諂諛也오. 正義直指해야 舉人之過나 非毀疵也라.

言己之光美해야 擬於舜禹하고 參於天地이나 非夸誕也며 與時屈伸해야 柔從若蒲葦나 非懾怯也라. 剛強猛毅해야 靡所不信이나 非驕暴也오 以義變應해야 知當曲直故也니라.

詩曰 左之左之에 君子宜之하며 右之右之에 君子有之라하니 此言君子는 以義屈信變應故也니라.

6章

君子 小人之反也라.

君子 大心則天而道하고 小心則畏義而節하며 知則明通而類하고 愚則端慤而法하며 見由則恭而止하고 見閉則敬而齊하며 喜則和而理하고 憂則靜而理하며 通則文而明하고 窮則約而詳이니라.

小人則不然하니 大心則慢而暴하고 小心則淫而傾하며 知則攫盜而漸하고 愚則毒賊而亂하며 見由則兌而倨하고 見閉則怨而險하며 喜則輕而黻하고 憂則挫而懾하며 通則驕而偏하고 窮則弃而僂이니라.

傳曰 君子兩進하고 小人兩廢라하니 此之謂也니라.

7章

君子治治하고 非治亂也니 曷謂邪아 曰 禮義之謂治하고 非禮義之謂亂也라 故君子者는 治禮義者也오 非治非禮義者也니라. 然則國亂將弗治與아 曰 國亂而治之者는 非案亂而治之之謂也라 去亂而被之以治니라.

8章

君子絜其辯(身)하면 而同焉者 合矣며 善其言하면 而類焉者 應矣라. 故馬鳴而馬應之하고 牛鳴而牛應之는 非知也오 其勢 然也니라.

故新浴者 振其衣하고 新沐者 彈其冠은 人之情也니라 其誰能以己之漹漹로 受人之撻撻者哉아.

9章

君子養心은 莫善於誠이니 致誠則無他事矣리라 唯仁之爲守하고 唯義之爲行이니 誠心守仁則形하고 形則神하고 神則能化矣니라. 誠心行義則理하고 理則明하고 明則能變矣리라.

變化代興을 謂之天德이라 天不言이나 而人推高焉하고 地不言이나 而人推厚焉하고 四時不言이나 而百姓期焉하나니 夫此有常해야 以至其誠者也니라.

君子至德해야 嘿然而喻하고 未施而親하고 不怒而威하나니 夫此 順命해야 以慎其獨者也니라.

善之爲道者니 不誠則不獨하고 不獨則不形하나니 不形이면 則雖 作於心하고 見於色하며 出於言이라도 民猶若未從也니 雖從必疑 니라.

天地 爲大矣나 不誠이면 則不能化萬物하고 聖人爲知矣나 不誠 이면 則不能化萬民하고 父子爲親矣나 不誠이면 則疏하고 君上爲 尊矣나 不誠이면 則卑하나니 夫誠者는 君子之所守也오 而政事之 本也니라.

唯所居以其類至하나니 操之則得之하고 舍之則失之라 操而得之 則輕하고 輕則獨行하고 獨行而不舍則濟矣니 濟而材盡하면 長遷 而不反其初則化矣니라.

10章

君子 位尊而志恭하고 心小而道大하며 所聽視者近이나 而所聞見者遠하니 是何邪오 是操術然也니라 故千人萬人之情은 一人之情이 是也며 天地始者는 今日이 是也며 百王之道는 後王이 是也니라

君子 審後王之道하야 而論於百王之前은 若端拜而議며 推禮義之統하야 分是非之分하고 總天下之要면 治海內之衆은 若使一人이라

故操彌約이나 而事彌大하니 五寸之矩로 盡天下之方也라 故君子不下室堂이나 而海內之情이 舉積此者는 則操術然也니라.

11章

有通士者하며 有公士者하며 有直士者하며 有愨士者하며 有小人者라 上則能尊君하고 下則能愛民하며 物至而應하고 事起而辨하니 若是則可謂通士矣오

不下比以闇上하고 不上同以疾下하야 分爭於中이면 不以私害之하니 若是則可謂公士矣오

身之所長을 上雖不知라도 不以悖君하며 身之所短을 上雖不知라도 不以取賞하며 長短不飾하여 以情自竭이니 若是則可謂直士矣오

庸言必信之하고 庸行必慎之하며 畏法流俗하여 而不敢以其所獨甚이니 若是則可謂慤士矣오

言無常信하고 行無常貞하며 唯利所在에 無所不傾이니 若是則可謂小人矣니라.

12章

公生明하고 偏生闇하며 端慤生通하고 詐偽生塞하며 誠信生神하고 夸誕生惑하나니 此六生者는 君子慎之오 而禹桀이 所以分也니라.

13章

欲惡取舍之權이라 見其可欲也어든 則必前後慮其可惡也者하며 見其可利也어든 則必前後慮其可害也者하니 而兼權之하고 熟計之然後에 定其欲惡取舍니 如是則常不失陷矣니라.

凡人之患은 偏傷之也하나니 見其可欲也어든 則不慮其可惡也者하며 見其可利也어든 則不慮其可害也者라. 是以로 動則必陷하고 爲則必辱하나니 是偏傷之患也니라.

14章

人之所惡者는 吾亦惡之하나니 夫富貴者엔 則類傲之하고 夫貧賤者엔 則求柔之하나니 是非仁人之情也오 是姦人이 將以盜名於 晦世者也니 險莫大焉이라 故曰 盜名은 不如盜貨이니 田仲史鱣 不如盜也니라.

榮辱篇第四

1章

懦泄者 人之殃也오 恭儉者 倂五兵也니 雖有戈矛之刺나 不如 恭儉之利也니라. 故與人善言은 煖於布帛하고 傷人之言은 深於 矛戟이라

故薄薄之地 不得履之는 非地不安也오 危足無所履者는 凡在言 也니라. 巨涂則讓하고 小涂則殆니 雖欲不謹이나 若云不使니라.

2章

快快而亡者는 怒也며 察察而殘者는 伎也며 博而窮者는 訾也며 清之而愈濁者는 口也며 參之而愈瘠者는 交也며 辯而不說者는 爭也며 直立而不見知者는 勝也며

廉而不見貴者_는 藟也_며 勇而不見憚者_는 貪也_며 信而不見敬者_는 好剽行也_니 此 小人之所務_오 而君子之所不爲也_{니라}.

3章

鬪者_는 忘其身者也_오 忘其親者也_며 忘其君者也_{니라}. 行其少頃之怒_{하야} 而喪終身之軀_{하나니} 然且爲之_는 是忘其身也_요. 室家立殘_{하고} 親戚不免乎刑戮_{하나니} 然且爲之_는 是忘其親也_며

君上之所惡也_오 刑法之所大禁也_{로되} 然且爲之_는 是忘其君也_{니라}. 憂忘其身_{하고} 內忘其親_{하고} 上忘其君_{하니} 是刑法之所不_舍也_오 聖王之所不畜也_{니라}.

乳彘觸虎_{하고} 乳狗不遠遊_는 不忘其親也_며 小人_은 憂忘其身_{하고} 內忘其親_{하며} 上忘其君_{이면} 則是人也_니 而曾狗彘之不若也_{니라}.

凡鬪者_는 必自以爲是_{하고} 而以人爲非也_니 己誠是也_오 人誠非也_면 則是己君子_오 而人小人也_{니라}. 以君子_로 與小人相賊害也_는 憂以忘其身_{하고} 內以忘其親_{하고} 上以忘其君_{이니} 豈不過甚矣哉_{리오} 是人也_는 所謂以狐父之戈鑿牛矢也_{니라}.

4章

有猶彘之勇者며 有賈盜之勇者하고 有小人之勇者며 有士君子之勇者니라. 争飲食하고 無廉恥하며 不知是非하고 不辟死傷하며 不畏衆彊하고 恇恇然唯利飲食之見이면 是猶彘之勇也오.

爲事利하고 争貨財하며 無辭讓하고 果敢而振하며 猛貪而戾하며 恇恇然唯利之見이면 是賈盜之勇也오. 輕死而暴이면 是小人之勇也오

義之所在하여 不傾於權하며 不顧其利하고 舉國而與之라도 不爲改視하며 重死持義而不撓면 是士君子之勇也니라.

5章

儵魴者는 浮陽之魚也니 肱於沙而思水면 則無逮矣리니 挂於患而思謹이면 則無益矣라 自知者는 不怨人하고 知命者는 不怨天이니 怨人者 窮하고 怨天者 無志니라 失之已하고 反之人하니 豈不迂乎哉리오.

6章

榮辱之大分과 安危利害之常體는 先義而後利者榮하고 先利而後義者辱이라 榮者常通하고 辱者常窮하나니 通者常制人하고 窮者常制於人이니 是榮辱之大分也니라

材慤者常安利하고 蕩悍者常危害하나니 安利者常樂易하고 危害者常憂險하고 樂易者常壽長하고 憂險者常夭折하나니 是安危利害之常體也니라.

7章

夫天生蒸民하야 有所以取之하나니 志意致修하고 德行致厚하고 智慮致明이면 是天子之所以取天下也니라.

政令法하고 舉措時하고 聽斷公하야 上則能順天子之命하고 下則能保百姓이면 是諸侯之所以取國家也니라.

志行修하고 臨官治하며 上則能順上하고 下則能保其職이면 是士大夫之所以取田邑也니라.

循法則 度量 刑辟 圖籍하야 不知其義라도 謹守其數하야 慎不敢損益也하고 父子相傳하야 以持王公이라 是故三代雖亡이라도 治法猶存하니 是官人百吏之所以取祿秩也니라.

孝弟原慤하야 鞫錄疾力하야 以敦比其事業하야 而不敢怠傲하면 是庶人之所以取煖衣飽食하고 長生久視하야 以免於刑戮也니라.

飾邪說하고 文姦言하며 爲倚事하고 陶誕突盜하며 惕悍懦暴하여
以偷生反側於亂世之間하면 是姦人之所以取危辱死刑也니라.

其慮之不深하고 其擇之不謹하며 其定取舍楷僂이면 是其所以危
也니라

8章

材性知能은 君子小人一也오 好榮惡辱하며 好利惡害는 是君子
小人之所同也라. 若其所以求之之道는 則異矣니라.

小人也者는 疾爲誕而欲人之信己也하고 疾爲詐而欲人之親己
也하며 禽獸之行而欲人之善己也니라. 慮之難知也오 行之難安
也며 持之難立也니 成則必不得其所好하고 必遇其所惡焉이라.

故君子者는 信矣오 而亦欲人之信己也하고 忠矣오 而亦欲人之
親己也하며 修正治辨矣오 而亦欲人之善己也하나니 慮之易知也
하고 行之易安也하며 持之易立也라 成則必得其所好하고 必不遇
其所惡焉이라.

是故窮則不隱하고 通則大明하며 身死而名彌白이니라. 小人은 莫
不延頸舉踵而願曰 知慮材性은 固有以賢人矣하리니 夫不知其
與己無以異也이라. 則君子는 注錯之當하고 而小人은 注錯之過
也니라.

故孰察小人之知能하면 足以知其有餘可以為君子之所為也니라.
譬之컨대 越人安越하고 楚人安楚하며 君子安雅하나니 是非知能
材性然也오 是注錯習俗之節異也니라.

9章

仁義德行은 常安之術也나 然而未必不危也며 汙慢突盜는 常危
之術也나 然而未必不安也라 故曰 君子道其常이오 而小人道其
怪니라.

10章

凡人有所一同하니 飢而欲食하고 寒而欲煖하고 勞而欲息하며 好
利而惡害하니 是人之所生而有也오 是無待而然者也니 是禹桀
之所同也니라.

目辨白黑美惡하고 耳辨音聲清濁하고 口辨酸鹹甘苦하고 鼻辨芬
芳腥臊하며 骨體膚理 辨寒暑疾養이라 是又人之所常生而有也라
是無待而然者也니 是禹桀之所同也니라.

可以為堯舜하고 可以為桀跖이며 可以為工匠하고 可以為農賈하
니 在勢注錯習俗之所積耳이니 是又人之所生而有也오 是無待
而然者也며 是禹桀之所同也니라.

爲堯禹則常安榮하고 爲桀跖則常危辱하며 爲堯禹則常愉佚하고
爲工匠農賈則常煩勞라 然而人力爲此而寡爲彼는 何也오 曰陋
也니라.

堯禹者는 非生而具者也라 夫起於變故하야 成乎修하니 修之爲
待盡而後備者也니라. 人之生은 固小人이라 無師無法이면 則唯
利之見耳니라. 人之生은 固小人이로되 又以遇亂世하고 得亂俗하
니 是以小重小也며 以亂得亂也라 君子 非得勢以臨之면 則無由
得開內焉이라.

今是人之口腹이 安知禮義며 安知辭讓이며 安知廉恥隅積이리오
亦哕哕而噍하고 鄉鄉而飽已矣라. 人無師無法이면 則其心正其
口腹也리라. 今使人生하야 而未嘗睹芻豢稻粱也하고 惟菽藿糟糠
之爲睹면 則以至足爲在此也리라.

俄而粲然有秉芻豢稻粱而至者면 則矐然視之曰 此何怪也오하
리라. 彼臭之而無嫌於鼻하고 嘗之而甘於口하고 食之而安於體면
則莫不弃此而取彼矣리라

今以夫先王之道와 仁義之統으로 以相群居하고 以相持養하고 以相藩飾하고 以相安固邪아. 以夫桀跖之道와는 是其爲相懸也 幾直夫芻豢稻粱之懸糟糠爾哉아. 然而人力爲此而寡爲彼는 何也오 曰陋也나라. 陋也者는 天下之公患也니 人之大殃大害也나라.

故曰 仁者好告示人이라하니라. 告之示之하고 靡之儆之하고 鈇之重之하면 則夫塞者俄且通也며 陋者俄且僩也며 愚者俄且知也리라.

是若不行이면 則湯武在上曷益이며 桀紂在上曷損이리오 湯武存則天下從而治하고 桀紂存則天下從而亂하니 如是者는 豈非人之情이 固可與如此하고 可與如彼也哉아.

11章

人之情은 食欲有芻豢하고 衣欲有文繡하고 行欲有輿馬하며 又欲夫餘財蓄積之富也라 然而窮年累世不知不足하니 是人之情也라.

今人之生也에 方多畜雞狗豬彘하고 又蓄牛羊이나 然而食不敢有酒肉하며 餘刀布하고 有困窮[豆]나 然而衣不敢有絲帛하며 約者有筐篋之藏이나 然而行不敢有輿馬라. 是何也오 非不欲也라 幾

不長慮顧後하고 而恐無以繼之故也리오 於是又節用御欲하며 收斂蓄藏以繼之也라 是於已長慮顧後에 幾不甚善矣哉아.

今夫偷生淺知之屬은 曾此而不知也라 糧食大侈하여 不顧其後하니 俄則屈安窮矣리라 是其所以不免於凍餓하여 操瓢囊爲溝壑中瘠者也니라. 況夫先王之道은 仁義之統하고 詩書禮樂之分乎아

彼固天下之大慮也니 將爲天下生民之屬하여 長慮顧後하고 而保萬世也니라. 其流長矣오 其溫厚矣며 其功盛姚遠矣니 非熟修爲之君子면 莫之能知也니라 故曰 短綆은 不可以汲深井之泉하고 知不幾者는 不可與及聖人之言이라하니 夫詩書禮樂之分은 固非庸人之所知也니라

故曰 一之면 而可再也며 有之면 而可久也며 廣之면 而可通也며 慮之면 而可安也며 反鈇察之면 而俞可好也니라. 以治情則利하고 以爲名則榮하며 以群則和하고 以獨則足이니 樂意者는 其是邪인저.

12章

夫貴爲天子하고 富有天下는 是人情之所同欲也라 然則從人之欲이면 則勢不能容하고 物不能贍也라 故先王案爲之制禮義以分之하야 使有貴賤之等과 長幼之差와 知愚能不能之分하니 皆使人載其事하야 而各得其宜이라. 然後使慤祿多少厚薄之稱하니 是夫群居和一之道也니라.

故仁人在上이면 則農以力盡田하고 賈以察盡財하고 百工以巧盡械器하며 士大夫以上至於公侯히 莫不以仁厚知能盡官職하니 夫是之謂至平이라. 故或祿天下로되 而不自以爲多하고 或監門御旅抱關擊柝이로되 而不自以爲寡라

故曰 斬而齊하고 枉而順하면 不同而一이라하니 夫是之謂人倫이라 詩曰 受小共大共하야 爲下國駿蒙이라하니 此之謂也라.

非相篇第五

1章

相人은 古之人無有也며 學者不道也니 古者엔 有姑布子卿하고 今之世에 梁有唐舉라. 相人之形狀顔色하야 而知其吉凶妖祥이라 한대 世俗稱之나 古之人無有也며 學者不道也니라.

故相形不如論心이오 論心不如擇術이라. 形不勝心이오 心不勝術
이니 術正而心順之면 則形相雖惡이나 而心術善하면 無害爲君子
也요. 形相雖善이나 而心術惡이면 無害爲小人也니라

君子之謂吉이오 小人之謂凶이라 故長短小大로되 善惡形相이 非
吉凶也니 古之人無有也며 學者不道也니라.

2章

蓋帝堯長이나 帝舜短하며 文王長이나 周公短하며 仲尼長이나 子
弓短이라 昔者에 衛靈公有臣曰 公孫呂하니 身長七尺이오 面長
三尺에 焉廣三寸이로되 鼻目耳具하며 而名動天下라.

楚之孫叔敖는 期思之鄙人也라 突禿長左하고 軒較之下로되 而
以楚霸하고 葉公子高는 微小短瘠하여 行若將不勝其衣나 然白
公之亂也에 令尹子西와 司馬子期는 皆死焉이로되 葉公子高 入
據楚하여 誅白公하고 定楚國을 如反手爾하니 仁義功名이 善於後
世라

故事不揣長하며 不揆大하며 不權輕重하고 亦將志乎心耳라. 長短大小 美惡形相을 豈論也哉리오 且徐偃王之狀은 目可瞻焉하고 仲尼之狀은 面如蒙俱하며 周公之狀은 身如斷菑하며 皋陶之狀은 色如削瓜하며 閔夭之狀은 面無見膚하고 傅說之狀은 身如植鱗하고 伊尹之狀은 面無須髮하며 禹跳湯偏하고 堯舜參牟子라 從者는 將論志意하야 比類文學邪아 直將差長短 辨美惡하야 而相欺傲邪아.

3章

古者桀紂는 長巨姣美하야 天下之傑也라 筋力越勁하야 百人之敵也로되 然而身死國亡하야 爲天下大僂하고 後世言惡이면 則必稽焉이러라. 是는 非容貌之患也오 聞見之不衆하고 議論之卑爾니라.

今世俗之亂君과 鄉曲之儂子는 莫不美麗姚冶하야 奇衣婦飾하니 血氣態度 擬於女子라 婦人은 莫不願得以爲夫하고 處女는 莫不願得以爲士하야 弃其親家하야 而欲奔之者가 比肩竝起라

然而中君도 羞以爲臣하고 中父도 羞以爲子하고 中兄도 羞以爲弟하고 中人도 羞以爲友니라 俄則束乎有司하야 而戮乎大市하면 莫不呼天啼哭하며 苦傷其今하야 而後悔其始라 是는 非容貌之患也오 聞見之不衆하고 議論之卑爾니라 然則從者는 將孰可也오

4章

人有三不祥하니 幼而不肯事長과 賤而不肯事貴와 不肖而不肯事賢은 是人之三不祥也니라

人有三必窮하니 爲上則不能愛下하고 爲下則好非其上은 是人之
一必窮也요 鄉則不若하고 偕則謾之은 是人之二必窮也요 知行
淺薄하며 曲直有以相懸矣로되 然而仁人不能推하고 知士不能明
은 是人之三必窮也니라

人有此三數行者에 以爲上則必危하고 爲下則必滅이라 詩曰 雨
雪瀼瀼하나 見晁聿消라 莫肯下遺하고 式居屢驕이라하니 此之謂
也니라.

5章

人之所以爲人者는 何已也오 曰 以其有辨也라 饑而欲食하고 寒而欲煖하며 勞而欲息하고 好利而惡害는 是人之所生而有也니 是無待而然者也라 是禹桀之所同也니라

然則人之所以爲人者는 非特以二足而無毛也라 以其有辨也니라. 今夫狴狴形笑도 亦二足而無毛也라 然而君子啜其羹하고 食其馘이라 故人之所以爲人者는 非特以其二足而無毛也오 以其有辨也라. 夫禽獸 有父子而無父子之親하고 有牝牡而無男女之別이라 故人道莫不有辨이니라

辨莫大於分하고 分莫大於禮하며 禮莫大於聖王이라 聖王有百하니 吾孰法焉고 故曰 文久而息節하고 族久而絕하며 守法數之有司도 極禮而禡라 故曰 欲觀聖王之跡인댄 則於其粲然者矣라하니 後王是也니라. 彼後王者는 天下之君也라 舍後王而道上古는 譬之是猶舍己之君하고 而事人之君也니라

故曰 欲觀千歲면 則審今日하고 欲知億萬이면 則審一二하며 欲知上世면 則審周道하고 欲知周道면 則審其所貴君子니라 故曰 以近知遠하고 以一知萬하고 以微知明이라하니 此之謂也니라.

6章

夫妄人曰 古今異情하니 其以治亂者異道라하니라. 而衆人惑焉이라. 彼衆人者는 愚而無說하고 陋而無度者也라 其所見焉도 猶可欺也어든 而況於千世之傳也리오 妄人者는 門庭之間도 猶可誣欺也어든 而況於千世之上乎아.

聖人何以不可欺오 曰 聖人者는 以己度也라. 故以人度人하고 以情度情하며 以類度類하고 以說度功하며 以道觀盡이니 古今一度也라. 類不悖하야 雖久同理라 故鄉乎邪曲而不迷하고 觀乎雜物而不惑하니 以此度之니라.

五帝之外無傳人은 非無賢人也라 久故也니라. 五帝之中無傳政은 非無善政也라 久故也니라. 禹湯有傳政而不若周之察也하니 非無善政也라 久故也니라.

傳者久則論略하고 近則論詳하니 略則舉大하고 詳則舉小라 愚者聞其略而不知其詳하며 聞其詳而不知其大也라 是以文久而滅하고 節族久而絶이라.